

7월 1일, 전남 나주 공군부대와 담양 특전사에서 장병위안공연이 열렸다. 가끔 접하는 군부대 위문이지만 이날 공연은 특별했다. 노스님이 혼자 힘으로 두 개 부대 1500여명의 장·사병들을 위문했기 때문이다.

광주 무등산 혜룡사 주지 혜우 스님(68·미타종 부총정). 군부대 위문공연을 혼자 했다고 하면 억지 같지만 누구하나 부인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신도들 도움 없이 스님이 여기저기 법문하고 받은 거머비에 가끔 들어오는 재(齎)비용을 모아 천여 명의 장병들은 위문한 것이기 때문이다. 4년째 계속 되어오고 있는 연례행사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혜룡사는 법당 옆에 방을 내서 대중이 기거하는 인법당으로 '토굴'에 불과하다. '큰스님'이란 소문에 참배 온 사람치고 놀라지 않은 이가 없다. 신도들은 '반듯한 부처님 집(법당) 짓자'고 안달이고, 스님은 그러한 신도들을 호되게 나무란다.

"지금 한국에 있는 절도 많아. 가진 것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나눠줘. 그것이 부처님 집 짓는 것이지. 북으로 치면 법당 기동 보시한 것 보다 더 큰 거여."

혜룡사 법당 부처님 앞에는 특이하게도 보시한 대신 점시모양의 나무함이 놓여있다. 누군가 참배하고 보시금을 놓으면 거두지 않고 여기에 놓이란다. 필요한 이가 있으면 가져다 쓰라는 스님의 배려에서다.

공양미도 마찬가지다. 밥당 한편에 포대 째 쌓여있다. 배고픈 이는 아무나 가져다 먹으라는 것이다.

스님의 보시행은 이뿐이 아니다. 매년 광주의 동서남북 구별로 노인잔치를 베푼다. 광주교도소는 물론 청송, 부산, 청주, 대구 등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을 정기적으로 위문한다.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학비지원은 숫자가 많아 몇인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수행삼아 붓글씨를 즐기는 스님은 호주머니에서 꺼내 줄 것이 없으면 달마도나 글씨 한점이라도 건네며 부처님 마음으로 살라고 당부한다.

일년이면 공연이 10여 차례가 넘다보니 아예 공연단이 신도이고 신도가 공연단이 되곤 한다. 위문 공연차 스님을 만났다가 스님의 뜻에 감동해 대부분 신도가 된 것

두고 나서는 연예인이 꽤 된다.

1일 오후 2시, 창설기념 체육대회가 한창인 나주 00부대 연병장에 무대가 설치됐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장병위안공연은 예술단의 열정과 장병들의 패기가 어우러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부대장의 포상유가 선물에 장병들이 온 몸을 바쳐 펼친 장기에 열기가 더해갔다.

이어 5시, 담양 특전부대로 긴급 이동한 공연단은 또다시 여름이 내릴 때까지 마지막 끼를 발산했다. 각설이의 끝까지 입담 속에 들어가는 찌그러진 강릉. 공연 내내 장병들과 한 몸이 된 공수연 단장 정삼덕 중장은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전방에 비해 후방은 위문공연이 흔치않은 편입니다. 군인들은 사기로 먹고살니다. 이렇게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나면 병영에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아울러 장병들은 스님의 인품에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스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게끔요." 공수 특전사 불자회장을 맡고 있는 원철중 중령은 "스님이 마련해준 위문공연이아말로 최고의 야단법석이다"며 혜우 스님에게 고마워 했다.

혜우 스님이 포교의 황금어장 군부대에서 '이것도 가져가'라며 맡았던 것은 군인의 사기뿐 아니라 불법(佛法)이었던 것이다.

혜룡사 (06)224-5588  
나주·담양·이준엽 기자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불사”  
광주 혜룡사 혜우 스님 보시행 ‘잔잔한 감동’  
정재 모아 군부대 교도소 위문·노인잔치 앞장



7월 1일 장병위문공연에서 장병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혜우 스님. 이날 나주 공군부대 담양 특전사의 두 부대장이 혜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참회하고 사과하라.” 이명박 시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불교단체 대표들이 7월 6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사진=강유신 기자

**‘범불교 규탄대회’로 강력대응**  
이명박 시장, ‘봉헌’ 발언 관련 사과 요구 거부

‘서울 봉헌’ 발언 파문(분지 481호 1면) 기사 참조와 관련해 이명박 서울 시장이 7월 8일 현재까지 불교계의 공식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범불교 규탄대회’ 열기로 하는 등 이 시장의 참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를 비롯한 34개 단체는 7월 8일 서울 중앙신도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서 불교 사회단체 대표자, 신도회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시장을 규탄하는 ‘범불교대회’를 19일경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망언을 규탄하는 현수막도 전국 사찰에 내걸 방침이다.

이 시장 ‘망언’에 대한 불교계의 규탄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기·강원 지역 조계종 본·말사 240여 명 주지스님들은 7월 8일 이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고종 보우승가회와 천태종 관문사, 부산시불교연합회에서도 이 시장 망언 규탄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경북 5개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은 7월 13일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신도회 등 경북 신도단체들도 규탄 성명서를 냈으며 평불협 동산반야회 등은 7일 이 시장 퇴진운동 서명식을 가졌다. 강유신 기자

## “책 읽기 바람 일으켜 불황 극복하자”

**불교출판인 모임, ‘종이거울보기’ 등 운동 전개**

‘고사위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체 일로를 겪고 있는 불교 출판계가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하고 ‘문서 포교’의 역할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불교출판에 종사하는 편집자와 영업자, 서점 대표자들은 ‘불교출판인 모임’을 새로 구성하고 7월 2일 ‘불교 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 출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의 출판 위기를 반영하듯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열악한 출판 현실을 개선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3시간 동안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불서읽기 운동 전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양서 발간, 도서거래행태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시도는 바로 ‘독서운동 전개’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주축이 돼 9월부터 전개하게 될 독서운동인 ‘초심자를 위한 불서 읽기 모임’은 1주일에 한 번 씩 모여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한 불교교리, 입문서, 개설서 등 기초적인 불서를 읽는 모임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안성 도피안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이거울 자주 보기운동’과 함께 불교계 내에 ‘책 읽기 바람’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 출판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 본격적인 불교계 책 읽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각 종단의 본사급 사찰이나 대형 사찰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종단 차원의 독서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책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각 종단 본원은 물론 사찰마다 대형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다”며 “우리도 종단의 총무원이나 본산, 또는 대형 사찰에서는 반드시 도서관을 설치해 불자들이 쉽게 불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찰도서관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인근 주민을 위한 지역도서관으로 개방함으로써 포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단이나 사찰에서 연간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해 ‘불자 필독서’를 구비하고, 스님들은 법회 때 마다 양서를 선정해 책 읽기를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출판연구소 윤정광 이사장은 “문서포교의 일환으로 불서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체계적인 신도교육과 독서분위기 형성이 불서 읽기를 제도화하는 노력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원기사 22면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승’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고향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승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삼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별특강

**금주요원**

[天台圓法師發願文]  
이내생명 다하도록 다른생과 전혀없이  
아미타불 오롯하게 서로이여 따르오리  
마음일량 끊임없이 육포광에 이어지고  
순간순간 변함없이 금색상에 닿아있네

내가잡은 이염주는 은법계의 표관이며  
허공으로 끈을삼아 깨지못함 전혀없네  
평등하신 노사나불 안개신곳 어디라만  
서방에서 아미타불 관 하고 구하러네

사십팔천 원력으로 아름답게 장엄하신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세계의 주인이신  
무량수 부처님께 두손모아 귀의하고  
무량 광 부처님께 마음모아 의지하리

**특별기도**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기도비 50,000원이상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 50일간)  
[2] 사량의 명절 칠석기도: 기도비 30,000원이상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 7일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택과 천정으로 나누어 위패를 모시며 영가님 수에 관계없이 한 쪽이 50,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큰법당에 영가들을 기도기간 내내 담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